

산업보건 주요뉴스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에서 「서울 근로자건강센터」개소식 개최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게 건강상담 등 종합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게 건강·심리·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 근로자건강센터」가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에 문을 열었다.

서울특별시장과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9일(월), 오후2시 개소식을 가진 서울 근로자건강센터는 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역할을 맡게 된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 작업관련성 질병 상담 ▲ 직무 스트레스와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 업무적합성 평가 ▲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하면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 서울 근로자건강센터

- 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17(하이시티A동 205, 213호)

www.suwhc.or.kr

- 전화번호 : 1600-6497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개소식 개최

4월 25일(목) 오후 2시, 성남 등 경기동부지역 소규모사업장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담당할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식이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개소식은 고용노동부 차관, 성남시 부시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 120명이 참석하여 지역 내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근로자건강센터의 개소를 축하해 주었으며, 향후 센터역할에 대한 당부말씀 등을 전하였다. 이로써 경기동부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건강센터의 무료 건강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성남산업단지공단 12층)

www.gdwhc.or.kr

- 전화번호 : 1577-6497

산업보건 주요뉴스

한국산업간호협회 창립 19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 개최

한국산업간호협회(회장 김희걸)는 지난 4월 23일,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 19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보건관리자 역할'을 주제로 고용노동부 정진우 산재예방정책 과장의 특강이 있었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와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안전보건공단 황영규 차장의 '사업장 위험성 평가방법', 허경화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교수의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 그리고 건설업, 제조업, 의료기관 등 분야별 위험성 평가 사례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다.

한국산업간호협회 창립 19주년 기념행사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 학술 세미나

위험성 평가와 보건관리자의 역할



새내기 사업장 재해예방 집중 지원

- 신규설립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등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안전보건 상 여력이 취약한 신규설립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컨설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자금지원, 안전보건교육 등 재해예방 집중 지원에 나선다.

공단의 이번 집중지원은 신규설립사업장의 경우, 경제적·시간적 여건상 재해예방 여력이 미약해 산업재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집중지원을 통해 안전보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단이 설립 2년 이하 사업장과 2년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2년 이하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한 사업장에 비해 재해이 최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사업장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수록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우선, 고위험사업장 5천 5백 개소를 선정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총 13만여 개 사업장에 사업장별 보유시설과 작업설비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공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0인 미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사업장에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50%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공단은 우선, 신규 설립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를 담은 「신규설립사업장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무술연기자 드라마 촬영 중 사고, 산재로 첫 인정

- 2012년 11월 18일,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이후

산업보건 주요뉴스

2012년 11월 18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무술연기자 박00 씨(32세)가 드라마 촬영 중 다친 사고에 대해 4월 8일 산업재해로 승인하였다.

박 씨는 지난 3월 23일 출연 중인 사극의 전투 장면을 촬영하던 중 상대 배역이 찌르는 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을 찔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어 4월 2일 산재 요양 신청을 하였고, 공단이 이를 승인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박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매일 평균임금 6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44,800원)을 휴업급여로 받는다. 치료 후에 장애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도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박 씨와 같은 무술연기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에서도 가입이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지난 4월 4일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107명으로, 유형별로는 창작 5명, 실연 102명으로 실연이 대부분이다. 분야별로는 연예(방송) 부문이 57명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였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②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확인), ③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후 가입을 승인하고, 보험 관계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성립된다. ☎

산업보건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